



한국복지패널조사 15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이봉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복지패널이 첫 조사에 들어간 것이 2006년이니 올해는 패널조사 15주년이 되는 해다. 15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패널조사가 축적한 연구 자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조사에 포함된 갓 태어난 아이는 그 후 중학교 졸업 때까지 매년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가 복지패널에 기록되었다. 마찬가지로, 2006년 당시 막 회사에 입사했던 서른 살 청년의 경제활동과 가구 상태도 마흔다섯 장년에 진입하는 기간까지 매년 복지패널이 기록해 왔다.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축적된 종단적 조사 자료로 이제 우리 사회의 지난 15년간의 사회경제적 역동적 동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패널조사는 일정 시점에 설정한 표본을 주기적으로 장기간 반복 추적 조사하여 표본이 대표하는

인구집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조사 방법이다. 패널조사가 만들어 내는 종단 자료는 일정 시점의 현황을 나타내는 횡단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이유로 패널연구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의 독일사회경제패널연구(GSOEP: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나 미국의 소득동태패널연구(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국가청 소년종단연구(NLSY: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등의 조사 자료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연구에 활용돼 왔다. 패널 자료의 특징 중 하나는 학술연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평가에도 활발히 이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1968년에 시작된 PSID는 이제 3세대에 걸친 자료를 활용한 연구

를 통해 빈곤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해 내고 있다.

패널조사 자료는 횡단 자료에 비해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의 경제적인 여건이 아동 인적자본 형성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를 상정해 보자. 횡단 자료를 이용해서는 같은 시점의 가구 소득과 아동 발달 간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가구 소득과 아동 발달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종단 자료에서는 시간에 따른 가구 소득 변화가 아동 발달 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dynamic)으로 살펴볼 수 있다. 횡단 자료의 정태적(static) 상관관계의 한계를 넘어 동태적 상관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 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에 유리한 방법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사회현상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국복지패널은 15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사회과학 실증연구의 꽃인 종단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연구 자료로 이용한 논문은 약 1100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축적된 종단 자료가 10년을 넘어선 이후인 2017년부터는 매년 100편 이상의 논문이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복지패널이 우리나라 실증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

다고 평가할 만하다.

한국복지패널의 기여는 양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학제적 연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교육, 주거, 가족, 건강 및 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보건학, 인구학, 통계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 대상 면에서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아우르고 있다. 연구 주제 면에서는 의료·주거·교육, 정신건강, 빈곤·불평등, 사회보장,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과학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단 자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5주년을 맞은 지금 새로운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이다. 생애주기로 보면 15세는 본격적인 청소년기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투자는 전 세대에 걸쳐 비용효과적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한국복지패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는 표본 유지율의 향상이다. 패널조사 자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표본 탈락을

얼마나 최소화하는가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복지패널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 총 7072가구로 출발해 5차 조사까지 원표본 유지율은 약 80%에 달했다. 다른 나라의 장기 패널조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표본 유지율이었다. 하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 표본 감소로 14차 조사에 이르러서는 유지율이 약 58%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본 유지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1800가구를 표본에 추가했지만, 추가 표본의 유지율도 2019년에 이르러서는 약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유지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표본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복지정책의 계획과 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학술적 활용에 비하면, 정책 연구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축적된 패널 자료는 따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바로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투자가 부족했다. 한 가지 방법은 ‘복지패널 정책연구팀’ 같은 상설 연구팀을 꾸려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책연구를 빠른 기간 내에 수행하고 적시에 정책 활용이 가능한 연구물을 생산해 관련 부처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행정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연구 자료의 질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이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에는 그에 해당하는

행정 데이터가 존재한다. 건강보험, 사회보험, 과세 자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데이터 등이 그에 해당한다. 행정 데이터를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연결할 수 있다면 자료의 신빙성과 활용 가능 범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 연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데이터 연결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패널 자료를 행정 데이터와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넷째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리 공간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다. 수집된 패널 자료에는 가구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주소 정보에 좌표(geocoding)를 부여해 지리공간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면 인간 사회행동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는 가구의 공간적 이동과 그에 따른 가구 상태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가능해진다. 주소 정보의 활용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또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개선과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투자를 늘리지 않고는 앞에서 거론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복지

패널이 15주년을 넘어 30년 그리고 50년을 지속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패널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㉞